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4 vol.399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WITH KRTA

2024 **vol.399**

표지 이야기_
정책 세미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제2회 방사선사의 날을 기념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본지 8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16 **시·도회 소식**

28 **전문학회 소식**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38 **News**
서울아산병원 김현정 연구원, 2024 북미영상의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40 **Insight**
외국의 방사선사 '명칭과 호칭'을 알아봐요

44 **Review**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영상의학과 QPS 활동 사례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50 **Interview**
국군의무학교 교수부장 서청수 대령이 말하는 군 조직 내 방사선사의 역할!

54 **Webtoon**
숨 참으세요

발행일	2024년 8월 28일(통권 399호)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호일(세브란스병원), 서영석(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성열훈(청주대학교), 김규형(명지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손진현(신구대학교)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 -576-6524
편집/디자인	여울
인쇄	송현문화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We are RT's

56 **공지사항**
(사)대한방사선사협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도관리 시범 사업 안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안내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슬로건 공모 수상작〉
〈초록모집〉
'방사선사의 날' 기념 포스터 공모전 결과 안내
제21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안내

65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2024

(사)대한방사선사협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59주년 '방사선사의 날'을 기념하여
회원 상호 간 단합과 교류를 위해 행사 개최

일자: 2024년 8월 18일(일) ~ 2024년 9월 30일(월)
장소: 골프존(온라인대회)_전국 어디서나 골프존 매장에서 참가

참가 자격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참가 방법

골프존 온라인 대회

시상 방법

신페리오 방식 점수 산정

대회 조건 및 규정

1. 골프존 회원(로그인 필수, 게스트라운딩 가능/순위 제외)
2. 1회 이상 참가자
3. 3회 이상 중도 포기 시 시상 제외
4. 대한방사선사협회 회비(~2023년)까지 완납 회원만 시상

대회 참가 방법

1. 대회가 종료(2024.09.30.)되기 전까지 링크(QR코드)를 통해 골프존 닉네임, 면허번호 등 전달
2. 골프존: 대한방사선사협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 입장(비밀번호: 2525)

시상 내역

1.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시상
   일자: 2024.11.16.(토) 시간 추후 공지, 장소: 더케이호텔 서울
2. 골프존 시스템 내의 스코어 랭킹으로 시상
3. 신페리오 1위 상금 30만 원, 2위 상금 20만 원, 3위 상금 10만 원 시상
4. 기타 이벤트상 시상 예정: 최다라운딩, 홀인원 등

골프대회 등록

* 세부 내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중앙회 소식 _ 04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시·도회 소식 _ 16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부산광역시회
경기도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라남도회
제주도회

전문학회 소식 _ 28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WITH KRTA

2024 May

5. 1.
- 군진방사선학회 직무보수교육

5. 2.
- 대한영상의학회 간담회
- 연수원 심장초음파 실습 종강식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실습 종강식

5. 4.
- 연수원 인천분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5. 5.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5. 7.
- 제2차 대외홍보 TFT 회의
- 간호법 관련 국회 민주당의원 간담회
- 신한카드사 협약 관련 미팅

5. 8.
- 제1차 대의원회 임원회의

5. 9.
- 제1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5. 10.
-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
- 제2차 상임이사회의

5. 11.~5. 12.
- 2024년 중간 감사

5. 11.
- 연수원 산부인과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학술대회
- 2024년 제1차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의
-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서면 평가

5. 12.
- 감사진 간담회
- 춘해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5. 13
- 방사선법 TFT 관련 미팅

5. 16.
-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5. 17.
- 민주당 정책특보 간담회
-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운영 사업자 미팅

5. 18.
- 충청북도회 학술대회
- 제21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문항 정리 워크숍
- 연수원 유방영상 전문화교육 개강식

5. 20.
-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5. 21.
- SRS테크놀 미팅
- 대외홍보위원회 규정 제정 관련 미팅

5. 22.
- 의기법 및 방사선법 제개정 관련 미팅
- 60년사 편찬 우선 협상 업체 미팅

5. 2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장실습 개정(안) 관련 회의

5. 24.
- 부산광역시회 학술대회
- 2024년 중간 감사 보고서 미팅

5. 25.
- 부산광역시회 학술대회
- 안전관리부 정도관리 측정 사업
-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5. 26.
- 사무국 인사 규정 및 복무규정 개정 미팅

5. 27.
- 제5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학술대상 시상 규정 개정 관련 미팅

5. 28.
- 현장실습 의무화 등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복지부 간담회
- 제2회 방사선사의날 준비 협의

5. 29.
- 초음파대응 TFT 회의
- 급여 규정 개정 관련 회의
- 제1차 학술위원회의

5. 30.
- 치요다테크놀 미팅
- 남인순 의원 미팅

5. 31.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춘계학술대회

2024 June

6. 1.
- 2024년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춘계 심포지엄
- 전라남도회 학술대회
- 마산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연수원 산부인과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6. 3.
- 연수원 유방영상 전문화교육 종강식
- 방사선사의 날 사전 미팅
-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 학술대회 운영사업자 계약

6. 4.
- 법제부&안전관리부 업무활동
- 백석문화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6. 5.~6. 9.
- ISRRT 국제학술 대회

6. 7.
- 총무부&재무부&법제부 업무활동

6. 8.
- 회원 무료 법률 상담

6. 9.
- 규정 및 전문학회 회칙 검토

6. 10.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6. 11.
-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

6. 12.
- 전문학회장 간담회

6. 13.
- 제2차 인사위원회의
- 제1차 운영위원회의
- 제3차 상임이사회의

6. 14.
- 국시원 찾아가는 워크숍

6. 15.
- 경상남도회 종합 학술대회
- 마산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6. 16.
- 전주비전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6. 17.
-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업무활동
- 미금 세브란스치과 업무 협약식

6. 18.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단체장 면담
- 제6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교육위원회와 보수교육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발로 뛰는 협회

6. 19.
- 법제부&대한방사선치료학회 업무활동

6. 20.
- 제4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6. 21.
- 울산광역시 의료기사총연합회 발대식
- 현장실습가이드라인 지침 관련 TFT 회의
- 재무부 업무활동

6. 22.
-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 회원 무료 법률 상담

6. 23.
- 규정 및 전문학회 회칙 및 제4차 상임이사회 상정 안건 논의 및 검토

6. 25.
-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동의과학대학교 현장평가

6. 26.
- 방사선사의날 행사 관련 업무보고
- 방사선사의날 기념 영상 촬영

6. 27.
-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간담회
- 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 논의

6. 28.
- 협회 회관 3층 내부공사 계약

6. 29.
- 연수원 운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 교육평가원 재단법인화를 위한 회의

2024 July

7. 1.
-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미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 국회 주호영 부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미팅
- 보건복지연대 대표자 회의

7. 2.
- 법제부&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업무활동
- 총무부&노무사&사무국 규정 개정 회의

7. 3.
- 대한초음파의학회 간담회

7. 4.
-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 간호법 관련 정책특보 미팅
- 총무부&재무부&법제부&사무국 업무회의

7. 6.
-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7. 8.
- 법제부&교육평가원&행정사 회의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

7. 9.
- 연수원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개강식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실습교육 개강식
- 제1차 방사선법 TFT회의
- 국가시험원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발로 뛰는 협회

7. 11.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 심포지엄 참석
- 제4차 상임이사회의

7. 13.
- 회원 무료 법률 상담

7. 15.
-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의

7. 16.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자 미팅
- 법제부&법무법인 정의 업무활동

7. 17.
- 스포츠동아 미팅

7. 19.
-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

7. 20.
- 제231차 정기이사회의

7. 22.
- 안전관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도관리 시범 사업 안내

7. 23.
- 제7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제1차 보수교육관리위원회의

7. 24.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7. 25.
- 제2차 전문방사선사 운영위원회의
- 연수원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종강식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실습교육 종강식

7. 26.
- 재무부 업무활동
-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 미팅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업무 활동

7. 27.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 학술대회
- 회원 무료 법률 상담

7. 28.
- 법제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논의 및 검토
-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7. 29.
- 제5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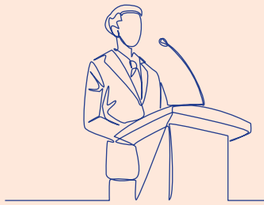
7. 30.
- 제3차 초음파 대응 TFT 회의
- 제2차 대의원회 임원회의

7. 31.
-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실무자 회의
- 방사선사의 날 기념 행사 준비 계획 검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정책 세미나



정책 세미나 포스터

제2회 방사선사의 날을 기념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 위원, 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부의장,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 및 전임회장, 시·도회장과 전문학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7월 19일,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미래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사선사 관련 정책 세미나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 위원, 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부의장,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 및 전임회장, 시·도회장과 전문학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개회사와 주최자인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정책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내·외빈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이번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수많은 내외빈을 환영해 주셨다.

1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환영사와 박주민 위원장, 김윤 위원,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뒤이어 ISRRT의 Napapong 회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백종헌 위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의 영상 및 서면 축사로 국회,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소통과 협업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부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협회의 방향성' 발표로 본격적인 정책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정책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부의장의 '법 제개정 과정', 바이엘코리아 송윤희 이사의 '의료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 대한방사선사협회 최정욱 부회장의 '방사선사 업무의 역사와 미래',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성열훈 교수의 '방사선사의 전문성' 발표로 방사

선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방사선사협회 회원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섬김요양병원 연선묵 회원에게 수여하였다. 보건복지위원장상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진수 회원 ▲오병원 문철홍 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4년 제2회 방사선사의 날을 기념하여 방사선사 위상을 널리 알리고,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 '방사선사' 가족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지현 회원이 수상자가 되었다. 신청 회원 기준으로 가족 및 사촌 중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수가 가장 많은 회원을 선정하였는데, 김지현 회원은 방사선사 7명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행된 포스터 공모전 시상이 진행되었다.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최성민 학생이 '건강의 시작은 방사선사로부터'라는 주제로 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김우섭 회원의 '방사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방사선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수상 ▲아산베스트내과의원 손수연 회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의 땀방울 방사선사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23년부터 7월 31일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립 59년을 맞은 올해는 국회에서 「방사선사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축사로 자리를 빛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섬김요양병원 연선묵 회원과
시상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한정환 회장은 "2025년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창립 60주년이 되고 회원 수가 6만여 명이 됩니다. 현재 협회는 '공익신고제'를 통한 무면허 퇴치, '방사선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 전문교육 진행,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온라인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야 할 바로 업무 적용이 가능한 목표는 법제화된 학생 실습의 정착을 위한 '교육평가원' 설립, '전문 제도 법제화', '방사선 단독법'등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 목표와 AI 등 미래 4차 의료환경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을 위해 제시되는 모든 목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관심과 회원 모두의 응집된 힘이 더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더욱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첫줄 왼쪽부터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국회의원 남인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국회의원 박주민(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수많은 내외빈의 참석으로 제2회 방사선사의 날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었다.

기념 촬영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

2024 ISRRT World Congress 참석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4 ISRRT World Congress'에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박연준 국제교류원장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세계 각국의 방사선사협회와 방사선 관련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SRRT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6월 6일에는 ISRRT 개회식을 시작으로 Asia/Australia Regional Meeting, ISRRT Council Meeting, Welcome Dinner에 참여하여 세계 방사선사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6월 7일에는 Pre-Congress workshop 참석 및 부스/배너 라운딩을 하였고, 6월 8일에는 Congress 참석 및 Angiography 세션에서 박연준 국제교류원장의 학술 논문 발표에 이어 한정환 회장과 한국 국내 회원의 미팅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6월 9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한 회장의 AI Radiomics/MR/CT 세션 Congress 참석 및 좌장 진행을 끝으로 ISRRT 행사 참석을 마무리했다.

주요 국제 교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호주 지역 미팅: 현재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국제적 업무 방향성 공유 및 향후 국내학술대회 일정 공유
- ISRRT Council Meeting: 미국 방사선사협회 회장 만남 및 추후 국제 교류 상 협력 요청(RSNA 참가 및 KRTA 국제학술대회 초청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 교류 예정)
- ISRRT Nappapong 회장으로부터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 대회(2024년 11월 16일) 축하 메시지 영상 수신
- France Benjamin 회장: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초청에 대한 요청
- Philippines: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초청에 대한 요청
- Japan Kodama 부회장: 스리랑카 특강 관련 정보 전달 수신 (인당 1500달러 지원×2명 예정, 일본에서는 Kodama 포함 총 3명 예정)
- Canada CAMRT: 캐나다 현지 내의 한인 방사선사 시험 합격률 및 직업선호도 등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한 정보 공유 예정

향후 주요 국제학술대회 일정으로는 2024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마카우에서 개최하는 The 24th Annual Scientific Meeting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하는 '일본 연례 추계학술대회(JART&JSRT 공동)'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에는 두바이에서 ISRRT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실시

2024년 3월 8일(금),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법무법인 일현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다양한 법률 민원 해결 및 법적 권익 증진 기여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회원을 위한 법률 상담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문의(민원) 마당에 회원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질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답변 제시로 협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 법률가 상담을 통해 회원에게 질 높은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일현은 간호법 대책 마련을 위한 TFT 참여와 현 의료법 개정 방향 및 새로운 의료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등 방사선사에 대한 높은 이해로 의료분야의 다각적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MK 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으로 근로계약,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기타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다 전문적인 법률 및 노무 상담 지원으로 회원과의 소통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법무법인 일현의 법률 자문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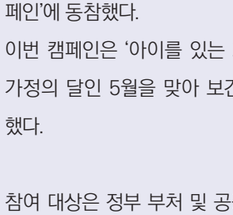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2024년 8월 8일(목),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을 주제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참여 대상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장이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보장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각 공공기관장부터 민간, 대국민으로 캠페인 참여 대상을 확산할 예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의 환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캠페인 동참 취지를 밝히며, 다음 주자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을 지목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판넬 또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를있는그대로존중, #긍정양육, #아동권리보장원'이 필수 해시태그이며, 캠페인 참여 기관장들의 사진 활용 백월 제작으로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수의사회 간담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24년 8월 7일(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한정환 협회장, 차상영 총무이사, 이진욱 교육이사, 백지현 사무국장, 김광민 사원, 대한수의사회에서는 허주형 회장, 한태호 수석부회장, 김은수 주임이 참석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는 '52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및 진단이 더욱 정밀하고 다양해지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동물의 초음파, MRI, CT 등 영상의학장치를 이용한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회원이 동물 방사선 검사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방사선사 업무 영역의 다양화 및 역할 확대 도모를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 영상의학 검사에 관한 사이버 보수교육 강의'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했다.

한정환 회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시 검사비 할인 등'의 업무 협약 내용을 제시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중앙회에서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추후 시·도회별로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수의사회의 상호 활발한 교류를 위해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수·발신하고, 주요 행사 시 초청을 통해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의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방사선사가 동물 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회

2024년도 일본 긴키지역 진료방사선사회(WART) 국제 학술대회 참가

2024년 2월 9일(금)~12일(월)까지 박성모 회장 외 3명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 Kinki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SRTA) & 도쿄 진료 방사선기사회(TART)는 학술 교류 협약식을 진행하였고, 세브란스병원 박상조 회원은 'Analysis of the Effects of Examination Clothing Fabrics on Images in Digital X-ray Imaging: Production of New Examination Clothing with Modal Material'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성모 회장은 2024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8차 국제 학술대회 참가 요청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요청하였다.

2024년도 부서장 간담회 개최

2024년 2월 15일(목), 제25대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비전 중 하나인 '함께하는 협UP!'의 일환으로 부서장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건대입구역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열렸으며,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회원 11명 이상이 근무하는 병원의 부서장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6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울특별시회 소개를 시작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정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하였다. 박성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함께하는 협UP!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화합의 시간 및 석식 간담회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이 상호 간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울특별시회와 부서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8차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24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8차 국제 학술대회가 지난 3월 16일, 서울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와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가 함께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의료 기술과 방사선학 연구의 발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 학술대회로서 한국, 대만, 일본의 회원들과 재학생까지 약 1700명이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국내외 회원과 재학생들의 분야별 논문 발표, 포스터 전시, 최신 의료기기와 기술 발전 상황 및 미래 의료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제품 소개 등 방사선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최신 연구 자료와 학술 발표 자료를 제공받아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5대 서울특별시회 학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수의 우수 연구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RTA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의 주영철 회원에게 돌아갔으며, 학술 최우수상은 서울아산병원의 이종은 회원이 수상했다. 학술 우수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남승화 회원이, 구연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정원희 회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이민영 회원, 서울대학교병원의 고동환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2024년도 대만 타이베이시(TPART) 국제 학술대회 참가

2024년 4월 19일(금)~22일(월)까지 박성모 회장 외 10명은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2024 Taipei Annual Meeting of TPART and 2024 Taipei 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에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김진수 회원이 International Session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병원 이길휘 회원의 'Optimum Dose and Usefulness Estimate of Scatter Ray Post-Processing Software for Mobile Hip Cross-table Lateral X-ray' 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이형섭 회원의 'Usability Testing for Oblique Pelvis Using Tube Angles' 논문을 발표하였다.
타이베이시 시의원, TPART 전임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Caesar Metro Hotel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학술 교류 협약식 및 대표자 선물 교환식을 진행하였다.

2024년 문화의 날 영화로의 초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 제25대 집행부는 '혜택받는 사UP!'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도 문화의 날 영화로의 초대'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번 '영화로의 초대' 행사는 서울특별시회 회원 간의 화합과 문화 소통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2024년 5월 29일(1차)과 6월 26일(2차)에 걸쳐 총 110명(1차 71명, 2차 39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1차 행사에서는 건대입구역 롯데시네마에서 강동원 주연의 〈설계자〉를, 2차 행사에서는 메가박스 센트럴점에서 하정우 주연의 〈하이재킹〉을 관람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화려한 액션과 배우들의 열연을 감상하며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성모 회장은 행사 후 "오랜 시간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라고 전하였다.

2024년 상반기 분회 간담회 개최

하이파이브(경청·공감·배려·수렴·화합) 프로젝트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2024년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상반기 분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분회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정회원이 대상이며, 작년까지는 '중소 병·의원 간담회'라고 불리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고자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제1차 간담회는 2월 22일에 시니어 회원들이 대상이었으며 회원 14명이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5월 2일에 심혈관계 근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회원 14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간담회는 5월 21일에 공무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3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참석자 및 서울특별시회 소개와 협회 회무 안내 및 일정 공지, 기타 사항 논의, 화합의 시간 및 석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특별시회 임원들이 직접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여 참석 대상 회원에게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박성모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과 더 폭넓은 소통 및 회원 needs의 이해를 통해 회원과 상생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회는 더 나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전하였다.

2024년도 일본 우쓰노미야시(TART) 국제 학술대회 참가

2024년 6월 28일(금)~7월 1일(월)까지 박성모 회장 외 7명은 일본 도치기 현 우쓰노미야시 도치기현에서 열린 '2024 Kanto Koshinetsu Scientific Conference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에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고동환 회원이 'Evaluation of the Images changing NEX using 3D-zero Echo Time Sequence', 서울대학교병원 남승화 회원이 'The study of Detector Exposure Index regadring Chest PA Examination with Auto Exposure Control'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 일본 회원의 총 4편의 논문발표와 Basic 세미나라는 주제로 CT, MR, DR, 방사선치료, MAMMO, RI 분야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TART 회장 및 10개 시회장이 참석한 일본 도치기현 우쓰노미야 도부호텔 그란데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학술 교류 협약식 및 대표자 선물 교환식을 진행하였고, 가나가와현 방사선사회로부터 '2025년 가마쿠라 학술대회'의 공식 참석 요청을 받았다.

인천광역시회

제23회 미추홀 국제 학술대회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도약, 내일이 더 기대되는 IRTA!'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주관한 제23회 미추홀 국제 학술대회가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20일 오전 대학생발표 세션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회 김동진 정보통신이사가 함께하는 금관악단 'SNU 브라스 앙상블'의 식전 공연 및 축하공연, 한영민 나은병원 진료의무원장님의 'Atherosclerotic cerebrovascular disease: Role of neurosurgery'에 대한 특강, 8편의 회원논문 발표, 각종 수상 및 경품추첨 등으로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알차게 구성되었다. 회원논문 중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2024년 6월 22일에 개최되는 후쿠오카 진료방사선기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시회장 표창**
  엄정규 회원(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 협회장 표창**
  곽문영 회원(인천 병무지청)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
  정지현 회원(지안 건강증진센터), 고성빈 회원(인하대병원), 김기봉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춘원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박동호 회원(길 의료재단 길병원)
- **인천광역시장 표창**
  김대한 회원(인천보훈병원)
- **슬로건상**
  김영규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구연상**
  이선화 회원(인천기독병원)
- **우수상**
  이왕희 회원(가천대 길병원), 김응천 회원(인천성모병원), 이호희 회원(인천성모병원)
- **최우수상**
  노동원 회원(한국건강관리협회), 구세림회원(국제성모병원)
- **대상**
  서강현 회원(인천한림병원)

2030 소통위원회 활동

2024년 5월 20일,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2030 소통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2030소통위원회는 박종창 17대 인천광역시회 회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차세대를 이끌어 갈 각 병원의 2030 회원들에게 협회 소개 및 활동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각종 의견 청취의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성모병원 2030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지금까지의 협회 이미지, 협회가 개선해야 할 점, 협회에 바라는 점 및 추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건의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회원들은 협회에 대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길 당부하였다.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 야구 관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 야구 관람' 행사가 2024년 6월 26일에 진행되었다. 6월 19일 13시경 협회 홈페이지 행사 게시판 댓글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였고, 어마어마한 성원에 힘입어 약 1시간 만에 마감되었다. 장마 시기라 비가 올까 봐 걱정했으나, 다행히도 화창한 날씨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라인프렌즈 '브라운'의 시구와 함께 시작된 이날의 경기는 SSG vs KT로, 인천 연고인 만큼 SSG 응원석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2루타, 3루타, 홈런 등 많은 장타와 함께 무더위도 날려버린 신나는 경기였으며, 10:5 SSG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야구 관람'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은 평소 등반대회 또는 무비데이 행사에서 뵈었던 분들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 더욱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17대 임원진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대구광역시회

제21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2024년 6월 22일(토), 대구 컨벤션센터(EXCO)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가 있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구광역시회 임원과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메디엑스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총 350개 회사 및 단체가 참여 하여 720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대규모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대구광역시회는 각 500석, 200석, 150석 규모의 세미나장에서 테마별 다양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세미나장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학술 활동에 많은 열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관련 부스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선보이며 실제 계약을 위한 사전 단계도 진행되는 모습 또한 있었다고 전해진다.
본 학술대회는 AI를 주제로 "All New DRTA 도전과 혁신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앞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대비한 다양한 논문과 특강들로 구성되어 전시와 학술 그리고 화합의 장소로 매우 적합하였다.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은 많은 인파속에서도 회원들의 질서와 참여 덕분에 큰 행사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년 심장초음파 전문화과정

장마와 무더위 속에 7월 한 달간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연마관에서 진행한 심장초음파 전문화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7월 6일 개강식으로 시작된 교육은 20명의 회원과 강사들 그리고 임원들이 교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7월 6일 개강식에 참석한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은 "궂은 장마 기간 동안 뜻깊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하였고 7월 28일 수료식에서는 장동석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교육에 열정을 보여 준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청모 회장은 서면을 통해 함께 해준 회원 여러분과 임원진 그리고 강사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광역시회

제14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14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2024년 5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윤주호 부산광역시회 회장 등 임원 및 회원 수백여 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시 HART와 부산광역시방사선사회 BRTA의 MOU 체결에 따라 타이반록 베트남 회장과 회원들이 International Session에 참석하여 뜻 깊은 학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축사와 격려사, 재학생 논문발표, 심학준 캐논 의료영상AI연구센터 센터장 특강, 국제·국내 논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다.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부산백병원 이태훈 방사선사
- **부산광역시장 표창**
  부산의료원 손민아 방사선사
- **대한방사선사회 부산시회장 표창**
  동래봉생병원 천정헌 방사선사
- **감사패**
  양남희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4대 회장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안전한 방사선으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문방사선사로서 새로운 방사선기술을 공유하며 학문적 연구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직업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방사선사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의 핵심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다가오는 의료 4차혁명의 환경에서 방사선 직무와 관련된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연구함으로써 국민 보건과 행복한 삶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회

2024년 하이브리드 국제종합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2025년 4월 28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하이브리드 국제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안심 방사선 국민건강 지킴이 경기도회!'라는 슬로건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및 전국 의료기사 단체장 등의 참석으로 축사와 격려사로 화려하게 막이 올라갔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8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논문(12편), 방사선학과 재학생 논문(10편), 중국 회원 논문(2편), 초청 특강(MR Shield 관련 최신 지견, 대한실드 정호용 부대표) 등의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은 "경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재준 수원시장님과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수석부회장님, 15개 시도회장님들과 임원 분들, 멀리 중국 사천성에서 오신 Xia Chunchao SSRT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경기도 내 병의원 팀장님들, 경기도 내 5개 대학 학과장님과 교수님, 재학생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경기도회 회원 여러분께 자리를 빛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기도회는 화합과 복지를 위해 회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등 많은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경기도 내 검진센터 및 한방병원과 MOU체결을 통해 회원 및 가족 60% 할인, 한방병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30% 할인을 적용받게 되었다. 25대 경기도회 임원진은 보다 더 열심히 뛰어 회원 및 가족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16개 시도회 및 14개 전문학회의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경기도회가 더욱 움직이겠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경기도회 국제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차종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 COVID-19 부터 의료 현장의 중심에서 10,000여 명의 경기도 방사선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의료역량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강 격차,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방사선사의 역량 신장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다시 한번 개최를 축하하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회 감사패**
  이준혁 대표(DK메디칼솔루션), 김부근 대표(센트럴메디칼서비스)
- **경기도회 우수회원 표창**
  강남석(국군양주병원), 김광재(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김상균(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박지훈(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백승호(이재우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손혁인(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송인화(안양세종정형외과), 이주현, 정성진(시흥시 보건소), 채배호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김진원(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이승희(아주대학교병원), 정기영(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 **부천시장 표창**
  윤동석(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 **수원특례시장 표창**
  우재범(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재(아주대학교병원)
-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김종화(아주대학교병원, 김현용(한국의학연구소 수원검진센터), 이종현(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조성우(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최성식(아주대학교병원)
- **경기도지사 표창**
  김대건(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성현(용인 다보스병원), 박준호(아주대학교병원), 박지훈(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하정환(토마스의료재단 수원월스기념병원)
- **재학생 우수상**
  김태희(을지대학교), 송문선(동남보건대학교), 이채정(신한대학교), 김민채(안산대학교), 이은서(동남보건대학교), 김수아(안산대학교)
- **재학생 최우수상**
  김보민(신구대학교), 김성진(신한대학교)
- **재학생 대상**
  이강석(을지대학교, 심부전 환자 사망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성능 비교), 안희정(신구대학교, X-선 촬영실 문 개방에 따른 누설선량 측정)
- **회원 구연상**
  김영록(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소희(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훈(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김리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창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오경택(아주대학교병원), 유한범(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임현우(아주대학교병원)
- **회원 우수상**
  박호성(아주대학교병원), 박정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회원 최우수상**
  지영석(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뮬레이션 기반 차폐평가를 통한 최적두께 제안: 방사선상호시설검사)
- **회원 대상**
  김지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 환자 안전 시스템 연구: 환자 확인, 움직임 감지, 잔류인원 감지)

회원 논문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다가올 중국 사천성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논문 시상식 이후 경품 증정 이벤트인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은 "주말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학술대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소통과 화합이 있는 열린 경기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정읍분회 보수교육 개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진오)는 관내에 정읍시에서 2024년 4월 26일에 보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분회를 대상으로 현장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중소도시 회원은 현장보수교육 참석을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정읍분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하여 분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교육의 열에 불을 지폈다.

평일 저녁에 개최된 보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30명 이상의 많은 정읍분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정읍분회 소속 회원은 '항상 전주나 익산까지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업무종료 후 저녁 시간에 지역에서 실시되어 아주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전인기(전북대학교병원) 강사는 '지방분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깜짝 놀랐고 앞으로도 좋은 강

의를 준비하여 방사선사의 지식 향상에 힘쓰겠다.'라는 열정을 나타냈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유병규 부회장은 '이번 분회 보수교육의 흥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분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쓰담(쓰레기담고) 등반대회 개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진오)는 2024년 5월 15일 행락철을 맞아 도내 모악산에서 '쓰담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모악산은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여 전북특별차지도민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전북특별자치도회원을 비롯한 회원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등산과 더불어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로 정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70대 원로회원부터 10대 회원 자녀까지 다함께 어울어지는 행사의 장을 펼쳤다.

전북특별자치도회 곽영곤 회원 자녀인 곽지원, 태원군은 무더운 날씨에도 정상까지 등반을 마쳤고 '힘들고 중간에 내려가고 싶었지만 아빠와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등반대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회 원광년 회원의 자녀인 원재후 군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정화에 보탬이 되고 상금의 영광까지 함께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진오 회장은 이번 등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전라남도회

2024년 제1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에서 주관한 「2024년 제1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가 2024년 6월 1일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회 문철홍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폐회식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전라남도회 방사선사와 전남 지역 2개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함께 온·오프라인(Hybrid방식)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회원 연제발표 6편, 재학생 연제발표 6편, 포스터 12편 및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약 200여명의 회원 및 외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회원 337명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외빈으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을 비롯하여 강철호 부회장, 최정욱 부회장, 이현용 의장, 서울특별시회 박성모 회장,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 인천광역시회 박종창 회장, 윤일 부회장, 광주광역시회 신성진 회장, 대전광역시회 박희왕 회장,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 김유경 부회장, 강원특별자치도회 이홍규 회장, 충청북도회 정원희 회장, 전북특별자치도회 유진오 회장,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 백성호 부회장, 경상남도회 정봉재 회장, 이선홍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회 김창택 회장 등이 참석해주었다.

연제발표 시상에서 회원 부문 최우수논문상에 동신대학교 서영현 회원, 우수논문상에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박환상, 박호춘, 박진수 회원, 여수제일병원 정민식 회원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재학생 부문 최우수논문상에 동신대학교 김혜빈 학생, 광주보건대학교 김지민 학생, 우수논문상에 동신대학교 김영민, 김수정 학생, 광주보건대학교 황인호, 문성준 학생이 수상하였고, 재학생 포스터 부문에서는 금상에 동신대학교 강우진 학생, 은상에 광주보건대학교 박소영 학생, 동상에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학생이 수상하였다.

폐회식에서 전라남도회 문철홍 회장의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회원들과 대회장에서 수고해 주신 임원진 및 의전팀에 전하는 감사 인사와 앞으로 전남도회의 발전을 기리는 맺음말로 「2024년 제1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를 마치게 되었다.

제주도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의기총)도지사, 도의회의장 예방

금년 3월 12일 설립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표회장 김창택)는 19일 오후 도청 지사실에서 마련된 도지사 예방 자리에서 단체결성에 대한 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고 현안인 의대정원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의기총' 설립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최대 현안인 '의대정원 갈등 장기화에 따른 치료지연, 검사지연 등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체행동 또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표회장은 "현 갈등이 종식될 때까지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현 갈등국면과 상관없이 도민사회의 요구가 있다면 지역 보건의료현장과 도민건강을 지키기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화답하였다. 또한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직역인 '의료기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였고, 연중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 개최, 지역 의료정책 수립 시 각 직역 회장이 참여하여 직역별 현안이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주의기총에서는 이날 도의회의장도 예방하였으며 김경학 의장은 축하와 함께 제주의기총의 사회적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으며, 특히 현 갈등국면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의료기사 등 7개 직역 회장(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이 주축이 된 총인원 3,000여 명의 보건의료 협의기구이며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국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인력이다.

이날 도지사 예방 자리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장 김현경
- **도의회**
  도의회 의장 김경학
- **제주의기총**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김창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고용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정무상
  대한안경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고민성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김용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이명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부성만
  제주의기총 대외협력국장 고은남

(사)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제주의기총) 창립발대식 개최

2024년 6월 9일,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사)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제주의기총)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의기총은 의료기사단체의 단합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금년 3월 12일 제주지역 의료기사 8개 단체가 모여 통합 협의기구를 결성할 것을 의결하였고, 4월 18일 법인등록과 함께 출범하였다. 의대정원 갈등 사태 등 급변하는 의료시장과 의료환경, 의료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의료기사의 권익향상과 홍보 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표회장(김창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국회의원,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축사와 정·관·학·의료·언론·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한편 이날 창립 발대식에서는 APEC 정상회의 제주개최 기원 결의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인 제32차 APEC정상회의 개최는 제주에 더해 인천, 경북, 경주가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는 이달 중 개최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의기총 창립발대식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보건소장 현승호
- **도의회**
  의장 김경학,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도의원 양영수
- **국회의원**
  문대림
- **제주특별자치특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 **기타**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 이용석, 종합일간지 제주매일 대표 이상순,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김우정, 대한간호협회 제주지부회장 황순자,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희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윤재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장 양연준
- **제주의기총**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김창택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정무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고용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김용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부성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이명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현진철
  대한안경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고민성

제주의기총 창립발대식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창택입니다.

급변하는 의료시장과 의료환경, 의료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 3월 12일 제주지역 의료기사 8개 단체가 모여 통합 협의기구를 결성할 것을 의결하였고, 4월 18일 법인등록과 함께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주된 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찌보면 국민들의 대답이 당연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의사의 진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의료기사의 검사 및 치료 보조라는 기본 바탕에 간병 등의 부가 서비스로 그 일이 완성되어 진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기본의료 서비스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의견은 등한시 되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위주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료기사 등은 각 직역별로 분산되었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 우리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저희 의료기사는 개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개별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안경사, 치과기공사 등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행정부나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저희들의 고충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국민들조차 의료기사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현재 의료기사의 사회적 위치가 위 주체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며, 저희 의료기사 8개 단체는 조금 더 단합되고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려 합니다.

저희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단체에 힘을 보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단체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24 대한CT영상기술학회 제25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KCI 등재후보지, CT학회와 함께 만드는 연구와 미래'

대한CT영상기술학회(회장 김정훈)는 2024년 4월 2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KCI 등재후보지, CT학회와 함께 만드는 연구와 미래!" 라는 슬로건 아래 제25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약 500여 명의 CT에 관한 전문 지식인들의 화합과 지식 소통의 장으로서 23편의 연제발표와 3편의 포스터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술대회 역사 이벤트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CT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총 241편을 QR코드로 연결하여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말미에는 KCI등재 후보지가 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기백 교수(충북보건과학대)의 특강이 있어 더욱 유익한 학회가 되었다.

폐회식에서는 대한CT영상기술학회 김정훈 회장의 힘든 시기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공헌해 주신 임원진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2024 대한CT영상기술학회 제25회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학술대회 논문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학술대상**
  김석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임흥선학술상**
  지재선(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최우수학술상**
  김민정(서울아산병원)
- **우수학술상**
  소성미(서울대학교병원), 최현우(서울대학교병원)
- **학술장려상**
  박경진(서울아산병원), 김민수(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이광현(세브란스병원)
- **포스터최우수상**
  김광오(분당서울대학교병원)
- **CT구연상**
  최현우(서울대학교병원), 소성미(서울대학교병원)

2024년 조영제안전관리 연수강좌 개최(대구)

대한CT영상기술학회(회장 김정훈)는 2024년 5월 25일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지하1층 강당에서 2024년 대한CT영상기술학회 조영제안전관리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방 순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라권(전북대학교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경상권(영남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수강좌는 보수교육 학점 4점과 함께 4시간 교육 이수 후 교육인정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함으로써 회원들의 의료기관 평가를 대비하여 교육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에서 진행됨에도 수도권 및 강원지역 회원 등 총 68명의 회원이 등록하였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Actual clinical care and use of contrast media(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홍경수교수), 조영제 부작용 보고현황 및 대책(영남대학교병원 약제부 박은주), 알고쓰는 조영제 사용(바이엘코리아 심우열)으로 3가지 강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4교시에는 조영제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에 관한 현황 토론이라는 주제로 패널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이성주), 삼성서울병원(김영균), 세브란스병원(황의선)의 방사선사 3명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조영제 관련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2024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개최

호학(好學: 학문을 좋아함)은 공자[孔子]가 배움을 좋아하며 즐겼다는 말에서 유래된다. 공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 습득을 추구하였으며 언제나 새로운 지식습득을 갈구했다.

공자의 말을 담은 논어(論語)의 공야장편(微子篇)에는 '子曰(자왈) 十室之邑(십실지읍)에 必有忠信如丘者焉(필유충신여구자언)와 不如丘之好學也(불여구지호학야)'란 말이 있다. 이는 '열집이 모여사는 마을에는 나 같은 충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또한 습득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항상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취지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들의 지식습득에 관한 호학(好學)정신에 기반하여 회원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김광수 회장(서울아산병원)의 개회사와 함께 5월 11일(토), 서울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회원 각각의 흥미로운 논문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호학(好學)의 즐거움을 느낀 시간이었다. 또한 신한대학교, 을지대학교 등의 재학생들의 열띤 논문주제발표는 본 학회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광수 회장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학술대회 취지는 호학(好學)정신에 기반하여 본 학회 회원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통해 회원에게 즐거움을 주기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학술대회가 추후에도 모든 회원에게 호학(好學)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전문학회가 되길 기원해 본다.

대한방사선과학회

2024년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방사선과학회(회장 김성철)는 지난 5월 11일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1층 대강당에서 '제46회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방사선과학 기술의 미래 가치! 방사선과학회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215명의 회원과 재학생,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서는 '눈으로 보는 방사선기술과학의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김정민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신진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딥러닝 기반 CT 영상의 화질 개선'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백종덕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제 구연 발표 세션이 있어 방사선 과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많은 회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세션 및 일반 구연 세션으로 5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한 수상자 및 논문 주제는 아래와 같다.

일반 4편

○ 최우수 구연발표상

- 염진영(울산과학기술원), 「Photoacoustic-ultrasound Imaging Technology for Early Cancer Diagnosis」

○ 우수 구연발표상

- 최지원(연세대학교), 「항공승무원 선량평가에 미치는 최신 은하우주 방사선 모델의 영향」
- 남태우(가천대학교), 「PET/MRI 시스템의 주파수 선택을 위한 가변형 삼중 주파수 새장형 코일」
- 김호진(동서대학교), 「VGGNet을 활용한 IEC 규격 기반 노출지수 예측: 기초 검토 연구」

국제 2편

○ 최우수 구연발표상

- EunHye Kim(Hanseo University), 「Evaluating Organ dose during Portable X-rays in an Incubator for NICU Neonatal Patients」

○ 우수 구연발표상

- Daniel Hernandez(Gachon University), 「Noise Characterization during Simultaneous Microwave Ablation and Temperature Imaging with MRI at 1.5T」

포스터 세션 5편

○ 최우수 포스터발표상

- 조혜진(동서대학교), 「딥러닝 기반 DEXA 영상 초해상화 모델 개발: SRGAN 활용의 타당성 검토」

○ 우수 포스터발표상

- 임세원(가천대학교), 「가상 격자를 사용한 폐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의 잡음 증폭 현상 극복을 위한 U-Net 기반의 잡음 제거 알고리즘 연구」
- 이은우(가천대학교), 「전기적 특성 변화를 통한 MRgFUS시스템 송신 자기장 균질도 개선 연구」
- 백강남(인하대학교병원), 「중재적 시술 시 시술자 및 환자의 피폭 저감을 위한 부가 차폐체의 유용성 평가」
- 염진영(울산과학기술원), 「LASER Induced-ultrasound Endoscopic Imaging for Gastrointestinal Cancer」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24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2024년 녹음이 가득한 봄, 5월 25일(토)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오전 입자치료 소연구모임회를 개최하여 약 4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EJIHIT 병원에서 입자치료를 맡고 있는 Yoshifumi Yamazawa 의 Particle Therapy in Japan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국립암센터 김태윤 선생님의 입자치료연구회 소개 순서로 이른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오후에는 춘계학술대회 본 행사를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백금문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백금문 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소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적 동향을 빠르게 전달하는 학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협력사들과 참석해준 내빈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330여 명의 회원이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이대서울병원 이응만 교수의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개요: 기술적 측면 및 임상 적용", 서울아산병원 윤인하 팀장의 "SGRT experience in AMC" 등 오전에 2편의 초청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표면유도방사선치료(즉 SGRT)에 대한 지식과 앞으로의 미래적 방향성에 대해서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특강의 시간이었다.

오후 시간에는 회원논문 3편과 학생논문 2편의 학술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표면유도방사선치료 (SRGT)를 활용한 두경부암 환자의 체표 변화 감지 및 유용성 평가"를 발표한 서울아산병원 채명주 회원이 논문발표 구연상을 수상하였다.

홍주완 을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패널참석자로는 서울대병원 이제희, 삼성서울병원 이용철, 서울아산병원 윤인하, 연세암병원 이상규, 이대서울병원 최신철 이상 5명이 Why SGRT? 라는 주제로 회원들과 열띤 토의를 진행하여 아주 유익한 학술대회로 마칠 수 있었다.

백금문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발한 논의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대한방사선치료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게 해 준 아주 특별한 학술대회였고, 참가해주신 내빈과 학회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관계자 그리고 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끝맺음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각 병원 일선에 계신 치료학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회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2024년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JSMIM)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참석

한·일 국제학술교류 협정서 체결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JSMIM)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장소: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에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 임원진 총12인(학술발표 3인 포함)이 참가하였다. 이날 학술대회 진행에 앞서 한·일 양국 임원진들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 회장: 김완석)와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JSMIM 회장: 이하라 카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의 의료영상정보관리의 발전과 양국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최초 '2007년 한·일 국제학술교류 협정서' 체결 이후 다시 한번 협정서 체결을 하였다.

학술 대회 일정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문하였으며, 학술대회 일정 전날 웰컴파티에서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JSMIM) 이하라 카뉴 회장 및 임원진들과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의 임원진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4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당일 한·일 양국의 임원진 24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학술 진행은 양국 임원진의 현장 참석과 일본 회원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JSMIM)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

- 히가시 하마토(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 「AI 기반 의료영상 자동 검증 시스템 대처」
- 이하라 카뉴(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 「일본의 의료 AI를 둘러싼 배경과 미래전망」
- 우에스기 마사토(홋카이도 정보대학 의료정보학부), 「의료 AI시대 방사선 기술자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
- Yusuke Akita(PHILIPS), 「Introduction of Advanced Visualization with AI Algorithm」
- Takahisa Taniguchi(Siemens Healthcare K.K.),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iagnostic Imaging and Radiotherapy Planning Support」

2부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

- 김광수(삼성서울병원), 「외부영상 데이터의 입력 오류 보고 및 분석」
- 사재훈(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7개 병원간 진료정보공유 및 PACS 영상 공유 SYSTEM 구축 적용사례」
- 원준재(강동경희대병원), 「한국의 의료 AI의 임상활용 실태와 발전 동향」

3부 한·일 공동 심포지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일 공동 세미나 주제로 의료용 AI의 임상 활용 실태와 동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의 대한방사선사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 전 단계로 이번 일본 춘계학술대회에서는 JSMIM의 이하라 카뉴 회장과 KMIIAA의 원준재 부회장이 양국의 AI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임원들과 일본 회원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향후 일정

양국의 임원진들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제59차 대한방사선사추계학술대회(양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일본의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한·일 국제 학술교류 협정서 체결(2024년 5월 18일)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2024년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회장 정희동)는 2024년 5월 24일~25일 양일간 춘계학술대회와 연수 교육을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의 방사선사를 비롯해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업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합학술대회로서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회원은 3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연수 교육 4편, Case of Year 심포지엄 7편, 일반 연제 발표 16편, 재학생 논문발표 4편, 포스터 전시 4편으로 역대 최대 편수가 제출되어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가 돋보인 학술대회였다. 또한 국제학술교류로 학술대회 진행 전 Academic and Research Director of JAPIR인 Kazuma Matsumoto(Hyogo Medical University Hospital) 외 4인과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회장 정희동)는 간담회를 하였다. 간담회에서 양국의 학술 교류 방법과 일정, 각국 학회 참석 등에 대해 토의하였고 이를 위한 협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의 선량관리 및 비교를 위해 한일 방사선사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JAPIR는 International session에 일본 내에서 선량 관리를 주제로 3편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3개의 session으로 나뉘어 27편의 논문발표와 4편의 포스터가 전시되었으며 학술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 논문상

- 김시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심정맥포트 챔버용량이 포트 폐색에 미치는 영향과 r-tPA의 효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

우수 논문상

- 손승환(삼성서울병원), 「풍선 유지형 경피적 방사선 위루술의 시술 후 컴퓨터 단층 촬영 평가 : 고정형 풍선의 기능 평가 및 시술 후 관리」
- 박종운(서울아산병원),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TARE) 시 발생하는 Yttrium-90 방사성 폐기물 차폐용기 제작 및 유용성 평가」
- 이창원(서울아산병원), 「뇌혈관 중재 시술 시 사용되는 가이딩카테터 그룹간 저항성 평가」

우수 구연상

- 백승철(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혈관조영술 시 왼쪽 노동맥 접근법의 유용성 평가」

우수 포스터상

- 강정아(전북대학교병원), 「Advanced technique을 이용한 IVC filter 제거 시 실패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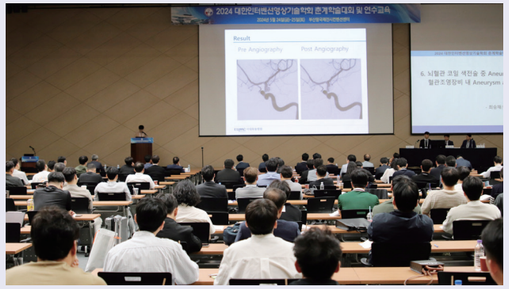
Case of year 상

- 박경호(대전선병원), 「A Case review of treatment subclavian artery Pseudoaneurysm」
- 하태환(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직접 경막동 천자에 의한 경막 동정맥루(DAVF)의 경두개 색전술

또한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조황우(강동경희대학교 병원)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정희동 회장(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학회 참석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 31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가장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술연구 활동에 헌신하시는 모든 학회 회원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 학회에서는 지속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위해 학술 연구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인터벤션 업무를 하며 항상 우리 마음속 한편에 응어

리 같았던 시술 보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봅니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에서도 인터벤션 시술 보조에 대한 제도화 노력을 통해 전국 많은 인터벤션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전문가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협회장님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관계자분,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의 큰 행사이자 축제인 춘계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춘계학술대회는 매년 1회 전국의 자기공명기술학회 회원 및 관련 업체, 대학교 방사선과 학생들이 모여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준비한 논문 및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MRI의 최신 기술 동향과 획기적인 연구내용을 소통하는 자리로 MRI에 입문한 지 4년 차가 되어가는 저에게는 매년 참여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돼 서울에서 KTX를 타고 행사장에 늦지 않기 위해 서울역으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지각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맑던 봄하늘이 당일 아침엔 왜 우중충한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비가 내려 행사에 방해가 되거나 오시는 회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고, 걱정과 달리 행사 시작 전에 도착한 회원들은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과 학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행사장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메인 홀에 15개의 협력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홍보하였고, 학회에서 마련한 스탬프 용지에 각 부스별 도장을 받아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도 하고, 기념품도 나누어주는 열띤 홍보 덕에 연제발표 시간인 오후 1시가 다 되어가도 회원들은 행사장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볼거리가 다양했습니다.

행사장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대공연장에서는 회원들의 논문발표와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유노을 교수님의 brain MRI의 이해와 최신지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신재승 교수님의 상복부 MRI에 관하여 특별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교수님의 강의는 MRI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와 영상의학과 판독의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이 되기에 충분한 강의와 질문이 오고 갔으며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강의 후 발표된 20편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논문발표는 참여한 회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최초로 실제 MRI 사고사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 3편이 발표되었습니다.

환자 가운에 녹색염료에 의한 화상, RF 흡수제 화재사고, 순간증

모제 사용으로 인한 자화율 인공물 발생사례는 임상에 있는 저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반대편 국제회의장 세션에서는 올해 2024의 MRI 기술의 최신 트렌드에 관한 주제로 바이엘, 유나이티드이미징, SIEMENS, GE, 게르베코리아,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총 6개 업체의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와 행사장 뒤편에는 총 5편의 논문 포스터가 게시되었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이 각 분야의 최신기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정말 흥미를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기술을 보며 감탄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GE사와 SIEMENS의 AI 기술은 더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지루할 틈 없이 관심이 있는 주제의 논문이나 강의, 업체발표가 있는 곳에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여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고 열심히 논문을 준비한 회원들과 특별히 자리해주신 특강 교수님들, 많은 홍보와 기술을 소개한 업체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고 400명이 넘는 회원이 방문하여 나눠진 세션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행사장을 통제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자기공명기술학회 임원진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매년 기대만큼 준비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내년에도 기대가 되며, 많은 회원들이 꼭 참석하길 희망해 보는 행사입니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장재현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2024 JRC 참석 및 '일본 유방 영상 검사 인증기관'과의 교류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회장 강병삼)는 2024년 4월 12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한 2024 JRC(Japan Radiology Congress) 참석 및 '일본 유방 영상 검사 인증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첫 대면을 가졌다. '일본 유방 영상 검사 인증기관'은 일본의 유방 검사와 관련된 의사, 물리학자, 방사선사가 함께하는 단체이며 국내의 유방 '전문방사선사'와 유사한 형태의 '인정 방사선사'라는 제도를 주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두 기관의 향후 교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유방 검사 분야의 각 나라 제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잠깐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유방암 검진은 국내 유방암 검진 제도와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유방 촬영과 더불어 유방 초음파와 유방 MRI까지 추가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은 국가에서 검진 기관이나 유방 촬영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여 유방 촬영을 하는 방사선사는, 전문 교육을 받고 인증 방사선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근무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검진 기관 평가 시 평가 기준에 속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의 여성 방사선사들이 이를 위해 인증 방사선사를 취득하고 있다. 이 인증 방사선사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영상을 평가하는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5년마다 갱신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두 기관은 상호 간 더 활발한 교류에 대한 의지를 전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MOU에 앞서 '히로코 니시데 교수(Gifu University)'는 올해 예정된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의 연수강좌에 참석하여 강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교류는 방사선사 중 여성 방사선사로 국한되어있어 다양한 교류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방 검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전문화교육 실시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회장 강병삼)는 5월 18일(토)-6월 2일(일), 총 6일(39시간)에 걸쳐 2024년도 유방영상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24년도 유방영상전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유방의 해부, 병리'를 비롯해 '유방촬영과 초음파, MRI 검사의 이론 및 검사법, 정도 관리, 유방암 진단 및 치료, 관련 법규' 등의 유방 관련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사진은 '강병삼, 김연래, 윤용수, 김미영, 홍동희, 이비은, 김은혜, 김민지, 홍민지 선생님'이었다.

교육의 마지막 날인 6월 2일(일)은 지난해에 이어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신기사 쇼룸'에서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 내용은 유방 촬영 장비와 유방 팬텀을 이용한 유방 촬영 실습 및 유방 촬영 장비 정도 관리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직접 장비에서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만으로는 배우기 힘들고 검사 부위 특성상 실제 근무 중에도 많은 실습을 통한 배움을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유방 촬영을 직접 장비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유방 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교육 이수 수료증 수여로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News _ 38
서울아산병원 김현정 연구원, 2024 북미영상의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Insight _ 40
외국의 방사선사 '명칭과 호칭'을 알아봐요

Review _ 44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영상의학과 QPS 활동 사례

WITH KRTA

News

서울아산병원 김현정 연구원, 2024 북미영상의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인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MI2RL) 김현정 연구원의
발표 내용과 수상 소식을 전한다.

글 김현정(서울아산병원)

RSNA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CERTIFICATE OF AWARD

Awarded to

Hyunjung Kim

For excellence in the

2nd Place Rapid Fire - Scientific

Presented during the

RSNA Medical 3D Printing in Practice Course
CHICAGO, ILLINOIS | APRIL 19–APRIL 20, 2024

Lumarie Santiago, MD
RSNA 3D Printing Special Interest Group
Chair

RSNA MEDICAL 3D PRINTING IN PRACTICE

서울아산병원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MI2RL, 김남국 교수) 김현정 연구원은 방사선사 출신으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4 북미영상의학회(RSNA,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3D Printing Course에서 Scientific-5min rapid fire 부문에서 우수 발표상(2nd place)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김현정 연구원은 '환자 맞춤형 폐 임플란트와 실제 폐의 형상 및 물성 비교(Fabricating a patient-specific lung implant for compensating pneumonectomy considering mechanical properties)'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폐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종격동의 빈 공간으로 인한 내부 장기의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생체 적합 실리콘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형상 및 물성을 고려한 식립 가능한 폐 임플란트를 제작하고, 이를 실제 폐와의 형상 정확도 및 물리적 특성과 비교했습니다.

김현정 연구원은 "RSNA 3D Printing Course에서 수상을 통해 영광스럽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학회에서의 수상은 제게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줍니다. 평소에 헌신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면서 "이번 학회에서 제 발표 주제는 실제 환자의 임플란트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RSNA 3D Printing Course에서의 연구상 수상으로, 방사선사로서 큰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방사선사들의 교육에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SN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 학회로, 수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김현정 연구원의 수상은 RSNA 3D Printing Course에서의 우수한 발표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만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저는 계속해서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더욱 노력하여 방사선사들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K

서울아산병원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MI2RL) 김남국 교수와 2024 북미영상의학회(RSNA) 3D Printing Course, Scientific-5min rapid fire 부문에서 발표하고 우수 발표상을 수상한 김현정 연구원

외국의 방사선사 '명칭과 호칭'을 알아봐요

'technologist'와 'technician'의 차이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방사선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환자 및 의료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

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명칭과 호칭은 사회적인 이슈로 '호칭 문제'와 '호칭 인플레' 등의 제목으로 언론도 여러 회 기사화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명칭과 호칭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 또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료 관련 드라마에서 잘못된 호칭으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만, 방사선사가 출연한 어느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등장할 때마다 '방사선사'라는 자막이 수십 회 올라와 홍보대사를 톡톡히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관점과는 달리 국외 상황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제방사선사회 유럽 지역 회장이 기고한 'Tech'와 'radiographer'

* 「Established professional roles and precise professional titles in radiology」, https://www.isrrt.org/blog/tecs-vs-radiographers

명칭과 호칭은 사회적인 이슈로 '호칭 문제'와 '호칭 인플레' 등의 제목으로 여러 회 기사화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방사선사의 공식 명칭으로 영국/유럽권은 radiographer,
북미주/아시아권은 'radiologic technologist'를 사용한다.

이란 글*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려 합니다. 부제는 '방사선학에서 전문적인 역할과 방사선사 명칭의 확립'이었는데 방사선사의 명칭과 호칭을 유럽 중심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이를 보면서 명칭과 호칭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참고할 사항으로 방사선사의 공식 명칭으로 영국/유럽권은 radiographer, 북미주/아시아권은 'radiologic technologist'를 사용한다는 점을 익혀둬야 합니다(WITH KRTA 제398호 「'세계방사선사회(ISRRT)'의 이름으로 본 방사선사 명칭의 공식 영문명 2가지」 참조).

명칭에 대하여

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 직업군 체계(Qualification Framework)에서 방사선사의 순위를 높이려는 ISRRT의 사업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선사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세계 방사선사의 현재와 미래성을 향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방사선사가 '의료 전문인'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책임과 더불어 '고도의 영상화 기술 및 치료 분야를 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학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WHO, IAEA 등 국제기구에도 방사선사 직군명을 공식 등록해 각종 보고서에 전문직의 정확한 명칭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SRRT 96개 회원 국가 중 적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실제, 유럽의 경우 각 국가의 언어, 문화, 학교교육과 자격 및 직무의 다양성에 따라 약 15가지의 직군 명칭이 있습니다.
희소하지만 비영어권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아직도 'technician'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음에 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졸업한 것만으로 면허를 대신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 국가들의 협회는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사선사의 명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협회도 법률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니 이 기회를 빌어 선배 방사선사들의 선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칭에 대하여

국제방사선사회에서는 영어권 국가 중 일부에서 'technologist'와 'technician'을 모두 일컫는 'Tech'로 호칭하고 있음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는 'Technologist'와 'Technician'이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간주할 소지가 있지만 같은 의미도 아니고 실무 범위도 다를 뿐 아니라 미래 전망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용어의 어원을 찾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technologist'와 'technician'에서 모두 사용하는 'techne(τέχνη)-'는 숙련, 기술, 예술, 기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chnologist'라는 단어에는 '-log-ist'라는 단어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logos' 및 'Logia(λογία)'는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의미하며 학문이나 지식을 표합니다.
'Techno-log-ist'는 즉 'techne', 'logia'와 '-ist'의 결합어로, 기

술적, 학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과학, 공학, 정보 기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뜻합니다.
'Technologist'는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미국)에서 Technician과 Technologist를 모두 가리키는 'Tech'로 호칭하고 있는데 두 직군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듯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동등한 실무 범위 또는 미래 전망 등이 다릅니다.
두 직군의 식별을 어원으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교육 제도와 면허 자격 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분리'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Technician'은 중등 교육 후 직업 교육을 통해 자격을 받으며 업무 범위와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Radiologic Technologist'는 고등 교육 후 의료 영상, 치료, 핵의학, 초음파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 교수, 연구원, 상급 실무, 병원 관리자, 의료기기 회사의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사선사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방사선사에게 'technician'이라 호칭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Tech'라 호칭하면 'technologist'의 줄임말로 인식해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미국 방사선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 관련 단체들은 'radiologic technician'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radiologic technician도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방사선사 면허를 발급할 때 일반 영상 검사로 제한(Limited)하고 이를 면허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허가 있어야 일정 교육 후 CT, MRI를 할 수 있는 인증(certify)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방사선사 면허만으로는 CT 또는 MRI 등 다른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사를 미국에서는 구분하기 위해 radiographer라고도 하지만 공식 명칭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모든 radiographer는 radiologic technologist인데 모든 radiologic technologist는 radiographer가 아니지요?"라는 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적용하는 'radiographer'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방사선사(radiologic technologist) 면허는 각 주 정부에 따라 직접 면허시험을 주관하거나 인증 기관인 ARRT에 위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사 명칭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호칭은 개선할 부분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은 개선은 이뤄졌지만 아직도 종종 '기사', '방사선 기사'라는 호칭을 접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접하면 바로 '방사선사'라고 정중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이를 상급 병원부터 주도적으로 실행해 줘야 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똑똑한 디지털 세대, MZ 방사선사가 협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해 줄 것이라 희망하며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ILO의 전문 직업군 체계 순위를 높이려는 ISRRT의 사업에 발맞춰 세계 방사선사회가 이 견해를 공유하여 우리의 교육 배경, 발전하는 역할,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tech' 및 'technician'이라는 직군명을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계방사선사회에서는 공식 명칭이 International Society of Radiographers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s(ISRRT)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직군명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국가들의 명칭과 호칭 환경을 다른 국가의 방사선사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윤리강령'을 지니고 있는 몇 안 되는 협회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방사선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환자 및 의료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 환자 및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의 존중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명칭을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최신의 학문 지식을 유지하고, 기술적 업데이트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해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3. 명칭의 직접 알려주기와 물어보기
서로의 존중과 협업을 위해, 명칭을 잘못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명칭을 알려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사에요. 실수일 수 있겠지만, 방사선사로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라고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잘못 부를 수도 있으므로 "어떤 직함으로 부르면 좋을까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방사선사로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합시다.
방사선 안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방사선사 윤리강령」도 참고하세요)
5. 업데이트된 용어 사용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품격 있고 순화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찍다'라는 용어는 스스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지속적인 교육 참여
의료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동향과 새로운 영상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합니다.
7. 방사선사는 품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 운동 등을 통한 자기 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료기관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방사선사 윤리강령 Code of ethics for radiologist

1	**방사선사는,** 인간존중에 최우선하는 직업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2	**방사선사는,** 심오한 학문적 연구와 발전적 기술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힘써야 한다.
3	**방사선사는,** 방사선 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환자에 대한 피폭선량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방사선사는,** 국민의료봉사를 행함에 있어 직업적 품위를 지키며 사회적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방사선사는,** 국민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는다.

방사선사인 유튜버 RT심(@RTShim)이 운영하는 알쓸방잡(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사선 잡학공간) 채널에 본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방사선사 직장문화
'방사선기사'라는 호칭 들어보셨나요?

※ 알쓸방잡은 '방사선사의 취업을 돕고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로서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정보를 주는 채널'입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영상의학과 QPS 활동 사례

QPS는 QI(Quality Improvement, 의료의 질 향상)와
PS(Patient Safety, 환자 안전)의 합성어이다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1. 서론

QPS(Quality and Patient Safety) 용어는 QI(Quality Improvement, 의료의 질 향상)와 PS(Patient Safety, 환자 안전)의 합성어로서 QPS 활동은 의료기관 내에 내재한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등과 관련 있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대한 모든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분석 조치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QPS팀의 운영은 의료기관 내에 소속된 모든 과에서의 환자 안전, 업무의 효율성 및 각과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활동은 최근 들어 더욱더 중요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관 자체의 QPS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필자가 근무했었던 해외 의료기관에서 QPS팀을 담당하면서 활동했었던 경험과 활동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QPS팀의 역할

QPS팀의 주요 업무 중의 일부는 병원 현장 곳곳에서 의료 행위들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 접점 부서에서 환자 확인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낙상 예방 조치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손 위생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이다. 환자 안전을 위한 매뉴얼들이 병원 내에서 잘 공유되도록 하는 것도 QPS팀의 주요 업무이다. 즉, 환자들에게 위험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각 부서에 관련 규정자료들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곳이 바로 QPS팀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각 부서의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QPS팀의 중요한 역할이다.

3. QPS팀의 구성

의료기관 내 QPS팀의 구성은 병원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QPS팀과 각 과의 QPS 활동을 운영할 과 내 QPS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QPS팀의 구성원 대상은 특정 직종이 아닌 가능한 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팀원의 직종으로는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 사무직, 시설 설비직으로 팀원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이유는 원내 다양한 환자 안전 분야에 대한 직종별로 각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관찰하는 견지가 다르고 환경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직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욱 다양한 근접 오류의 케이스를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QPS팀 활동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원 내에서 Quality팀, Accreditation팀, Risk Management팀, Data팀, Process improvement팀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초창기 QPS팀의 설립은 팀 내 자체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지침서를 만들고, 부서별 활동 구성원을 조직하고, 환자 안전 활동 계획 수립, 활동 수행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며,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해서 개선할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운영되었다. 또한 활동 중의 한 가지는 각 과에서 운영하는 QPS 조직을 위한 교육, 활동 계획, 실행방법 등을 제공할 기본적인 활동자료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모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집행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다.

4. 영상의학과 내에서의 QPS 조직 운영

영상의학과 내에서 안전 문화, 즉 환자 및 근무 직원에 대한 안전, 설비시스템의 안전, 안전한 선량의 사용 등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과내 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QPS(Quality and Patient Safety)활동은 의료기관 내 전체 조직에 적용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실현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부서의 QPS 조직 활동은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제 기준자료와 IPSG(국제 환자 안전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의 기준자료를 가장 근본적인 근거로 과 내 QPS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부수적으로는 FMEA(고장형태 영향 분석, Failure Modes Effect Analysis)와 RCA(근본 원인분석, Root Cause Analysis)를 추가로 운영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위에 언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유수 의료기관들은 JCI 인

QPS 활동의 목적은 의료기관 내에 내재한 다양한 환자 안전에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사후에 조처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증제 취득 여부가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JCI는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The Joint Commission이 1994년에 세운 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2만여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일부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JCI 인증제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JCI manual chapter중에 AOP(Assessment of Patient) chapter에는 영상의학과와 관련한 인증평가항목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chapter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 내용을 근본으로 하여 QPS 조직 활동을 하였다.

② IPSG(국제 환자 안전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IPSG는 JCI에서 강조하는 환자 안전목표 6가지 내용이다. 6가지 항목을 정리해 보면 정확한 환자 확인(Identify patient correctly), 효과적인 의사소통(Improve effective communication), 고주의 약물의 안전한 사용(Improve the safety of high alert medication), 정확한 수술(시술) 부위 확인(Ensure correct site, correct procedure, correct patient surgery), 손 위생(Reduce the risk of 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s), 낙상 예방(Reduce the risk of patient harm resulting from falls) 이상 6가지이다. 영상의학과의 내부적인 업무시스템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6가지 항목을 응용하여 적용하였으며 과내 QPS 조직팀에서는 직원들의 올바른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 활동하였다.

③ RCA(근본 원인분석, Root Cause Analysis)

RCA 활동은 의료기관 내에 이미 문제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정도관리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 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행 조치를 찾고,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계발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이다. 원인분석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물리적 원인, 인적 원인, 조직적 원인을 Fish bone diagram 등을 이용하여 원인분석을 진행하였다.

④ FMEA(고장 형태 영향 분석, Failure Modes Effect Analysis)

FMEA 활동은 RCA 활동의 목적과는 반대로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 내지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원인 파악과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실제로 과내 문제/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QPS 활동의 일환으로 적용하였다.

5. 영상의학과 내에서의 QPS 조직 활동

의료기관 내 자체의 총괄 QPS팀과 영상의학과 내 QPS팀이 각각 분기별로 나누어 실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의료기관 자체의 QPS팀은 의사직, 간호사직, 보건직, 사무직, 시설설비직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1년에 두 번(1, 3분기)에 걸쳐서 각 부서를 라운딩하는 Leadership Walk Round를 시행하였고, 영상의학과 내 QPS팀은 의사직, 간호사직, 보건직으로 구성된 팀으로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2, 4분기)에 걸쳐서 Departmental Internal Survey를 시행하였다(표1).

여러 직종으로 구성해서 실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각 직종 직원의 평가하는 견지가 조금씩 다르게 때문에 여러 직종이 함께 실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활동 결과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표1. QPS 실사 활동 연중 계획안

Annual Plan												
	Q.1			Q.2			Q.3			Q.4		
	1	2	3	4	5	6	7	8	9	10	11	12
Leadership Walk round	●	—	●				●	—	●			
Departmental Internal Survey				●	—	●	And / Or			●	—	●

본 기고문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방사선사 미래인력 직무에 대해서 창의적인 관점으로 대안을 고민해 보고 제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표2. 시정 조치 및 시정 기간 제시표

Time Frame for Action-Plan	
Extreme	• Immediate action to eliminate the risk • 3 Working days to submit Action-plan • 30 Working days to complete Action-plan
High	• 5 Working days to submit Action-plan • 45 Working days to complete Action-plan
Medium	• 10 Working days to submit Action-plan • 60 Working days to complete Action-plan
Low	• 10 Working days to submit Action-plan • 60 Working days to complete Action-plan

실사 활동 기간과 방식에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될 것이다.

실사 활동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각각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기간을 정하였다. 4가지 유형의 시정조치를 설정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심각성에 따라서 단계를 'Extreme', 'High', 'Medium', 'Low'로 나누어 'Extreme' 단계인 경우는 문제점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해결, 'High' 단계인 경우는 45일 내에, 'Medium'과 'Low' 단계인 경우는 60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긴급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시정 기간을 정하였고 실제 해결 여부를 feedback 시스템에 의해서 추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표2).

실제로 문제가 발견되어서 조처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 납 차폐복의 안전성 검사기록(Crack test record) 서류 보관 여부, 각 납 차폐복에 부착된 안전성 검사기록과 차기 검사 일정 표기 내용이 담겨진 꼬리표 부착 여부, TLD 보관 방법의 문제점, 각 검사실에 설치된 응급 호출버튼의 실제 작동 여부, 조영제 보관관리법(보관 방법 및 적정 온도 유지 관리), 과 내 마약류 약품의 보관 및 관리 운영 실태조사, 의사직에 해당하는 이상검사결과보고(CVR, Critical Value Report), 응급판독시간(STAT), 일반판독시간(TAT, Turn Around Time) 프로세스 등이 있었다. 추가적인 활동으로서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과 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지적되었던 QPS 활동 내용들을 정리하여 과 내 전직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QPS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다.

QPS팀의 또 다른 활동은 의료기관 내에 새로 입사한 모든 신입직원에게 QPS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교육시간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안전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 화재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뿐 만이 아니라 QPS 활동의 중요성, 직원으로서 QPS 활동 인식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입사 후 1개월 내에 시행하였다. 참고적으로 QPS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 내지는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자가 경험한 유용한 검색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자

면 www.nepatientsafety.org(NCPS), www.ahrq.gov (AHRQ), www.ihi.org(IHI), www.thinkreliability.com (ThinkReliability), www.justculture.com(The Just Culture) 등이 있다.

향후에 과 내 QPS 활동의 계획이 있거나 팀을 운영하는데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위에 제시한 사이트에서 QPS팀을 운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6. 결론

QPS 활동의 목적은 의료기관 내에 내재한 다양한 환자 안전에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사후에 조처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자 함이 주요 활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어떠한 시점을 정하고 마무리하는 활동이 아니고 지속해서 영구히 활동을 유지하여 안전에 최우선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의료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를 대비한 QPS 활동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QPS팀의 운영시스템은 큰 의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근무했었던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QPS팀 운영시스템을 정리하여 보았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안전한 진료와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은 전 직원들의 몫이라 하겠다. Ⓚ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Interview _ 50
국군의무학교 교수부장 서청수 대령이 말하는 군 조직 내 방사선사의 역할!

Webtoon _ 54
숨 참으세요

WITH KRTA

Interview

국군의무학교 교수부장 서청수 대령이 말하는
군 조직 내 방사선사의 역할!

Q 국군의무학교 교수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반갑습니다. 국군의무학교 교수부장 서청수 대령입니다. 저는 1991년 육군 소위로 임관 후 33여 년 동안 전·후방 야전부대 및 정책부서 등 다양한 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직책으로는 위관 장교(중위, 대위) 시에는 군병원 원무업무, 군수사령부 의무보급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영관장교(소령, 중령) 시에는 육군 보병 제5사단, 55사단, 72사단에서 의무대(대)장, 육군3사관학교 병원장 등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이라크 해외파병 부대인 자이툰병원 지원과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현지인 대상 민사작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정책부서에서 군 의무계획분야 총괄은 물론 국군의무학교에서 전투발전연구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대령 진급 이후에는 국군의무사령부 「군 의료혁신 TF」 단장을 역임하면서 군 의료혁신을 주도하였으며, 2019년 코로나19 위기대응 시기에는 의무군수처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군은 물론 정부와 연계된 최상의 예방 의무활동을 펼쳐 대통령 개인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군의무학교의 교수부장이면서 동시에, 650여 명의 육군 의정장교(의무행정장교) 병과장 임무도 수행 중입니다. 또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군진회장직을 수행하면서 民·軍 의료지원활동 학술교류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군의료 지원체계 개선에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 동안 후배들에게 의정병과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병과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Q '군대에서 일하는 방사선사'라고 하면 조금은 낯선 느낌이 드는데요, 군진방사선학회나 국군의무학교 등 군 조직 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군 내 방사선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방사선사 면허가 있는 군인, 군무원들은 군 병원, 사단급 의무대대(대), 의무실 등에서 방사선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별한 경우 군 방사선사 보수교육 등을 시행하는 국군의무학교에서 교관으로 임무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군인 방사선사의 경우 다수가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하다가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보건대학교와 MOU 체결 등을 통해 軍 전역 후 조기 취업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교수부장님은 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졸업 후 군 장교로 입대하여 오랜 시간 의정장교로 30년 이상 군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벤트가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군 생활 중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군 의료분야에서 환자중심의 의료혁신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범정부 차원의 예방의무활동 지원을 주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민간의 의료서비스 트랜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아직도 환자중심의 진료문화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제가 군 의료혁신TF를 이끌면서 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진단해보고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병원 최초로 환자 경험 평가를 시행하고, 병원별로 환자 경험 향상 경진대회는 물론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군병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 한가지를 예로 든다면 당시 MRI 촬영 대기일

국군의무학교 서청수 교수부장은 방사선과를 졸업한 후 군 장교로 입대한 방사선사 출신이다.

국군의무학교는 '신뢰받고 미래로 도약하는
군 의무'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를 8.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의료혁신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근무하시면서 가지게 된 교수부장님만의 철학이나 신념이 있으신지요? (방사선사라는 직업에 연관된 내용이어도 좋고 기타 다른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A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가지씩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발전과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막연한 100세 시대로만 여기지 실제로 은퇴 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사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사 정년퇴직 후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를 고민해보고 지금부터 한 가지씩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기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청수 교수부장께 6·25전쟁 전후 군 내 방사선사 교육과 군에 남아 있는 방사선사 옥은 방사선기술의 역사 관련 자료에 대해 질문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창엽 60년사 편찬 소위원장

부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군대에 있는 우리 방사선사가 앞으로 주력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방사선 의료기술 산업은 핵의학 산업, 방사선 치료산업, 영상의학 산업분야로 분류됩니다. 민간 의료환경은 급속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軍은 아직도 여러가지 시스템의 한계로 사회의 의료환경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분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대한방사선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학술교류, 인적네트워크 교류 등을 통해 민간 방사선기술을 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조직 내 보건의료 직군을 이끌어가시는 관리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병과장으로서 군 의료발전을 위해 의정병과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잠재역량을 향상시켜서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병과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 생활 후 전역 및 퇴직하는 후배 및 직원들을 위해 민간 보건대학 또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취업 지원 등의 역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방사선사분들이 자기 직무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방사선사로서 미래지향적인 삶과 더불어
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역량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에서 혹은 군 조직에서 선, 후배 동료 방사선사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제가 방사선사의 길을 가지 않고 직업군인을 선택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35여 년 전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병원실습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 병원 방사선과는 방사선사가 여러 명 계셨는데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지금의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軍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방사선사분들이 자기 직무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선·후배 방사선사분들 중에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교수님으로 또는 종합병원급 주요 직위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사로서 미래지향적인 삶과 더불어 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역량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관련해서 협회에서는 60년사를 기록할 사사편찬을 준비 중인데 6·25전쟁 때 당시 군의학교(現 국군의무학교)에서 방사선병을 교육한 것이 언제부터이며 교육 인원수, 교육 기간, 교육 방법(이론·실기), 교재 등을 알 수 있을까요?

A 먼저, 군 의무부대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1946년 5월, 의무기능을 담당하는 의무국이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의무부대가 대폭 확장됨에 따라 위생병과 의무장병의 육성이 필요하였고, 1949년 8월 9일, 군의학교(現 국군의무학교)가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전시 의무 장병 육성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로 의무 기초병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 속에 군의학교(現 국군의무학교)는 여러 차례 지역을 이동하며 교육 과정을 증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장병의 양성과 보수교육을 병행하여 군 의무요원 배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창설 초기에는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어서 특기 구분과 같은 체계화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세부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에 따르면, 1951년 5월 15일 교육 기간 9주간 고등기술반으로 출발하여 자대 의무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1952년부터는 교육 기간이 12주로 연장하여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까지 6·25전쟁 기간 중 총 9개 기수에서 173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군의무학교는 오늘날에도 '신뢰받고 미래로 도약하는 군 의무'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군의무학교는 우수한 의무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군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K

Webtoon

숨 참으세요 툴

27. 직원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접수처 언니는 언제나 스윗하게 '자기야'를 습관이시지만
대부분이 컴플레인 알려주시러 오시기에 무섭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만

사실 직원들은
대부분 전화로 검사실 상태를 물어 보시고
미리 예약을 하신 후 오십니다.

미리 접수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 미리 접수를 하셨다고 해도 접수처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다고 직원 우선으로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얼러덩 진료 받고

근무처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세요

* 근무를 끝내신 후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근무 중간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남은 선생님들이 잠시 맡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
남은 분들의 일이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환자분들이 별로 없으실 때나 가능하지

응급실 1시간 40분동안 대기

밀리고 밀려 컴플레인이 폭발하고 있을때는
이 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약 진료가 대부분인 '과'도 불가능합니다.

* 진료받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호쾌하게 리액션까지 함께 외치셨던
이 환자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파트에서 환자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전산상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직원이 먼저 들어간다고,
너무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료가 늦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

* 착하고 성실한 직원은
이러면 안됩니다.

콧구멍을 통해
코안 깊숙한 곳을 향해 길고 긴 면봉을 넣는 이 검사는
제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 비명을 다 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직원 찬스는 다신 경험 하고 싶진 않습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도관리 시범 사업 안내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의 정도관리 및 조정실 내 누설선량을 측정하고 평가해 주는 시범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를 다한 회원
지역 수도권 중·소 병의원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함)
측정장비 협회에서 보유 중인 정도관리용 계측 장비를 사용
신청방법 QR 코드를 통해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최근 정기검사 성적서와 장비 튜브 음극측 사진 첨부 필요

시범 사업 신청

기타
❶ 본 측정 사업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❷ 현재 시범 사업 단계로 일반촬영 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며, 여건상 수도권에 국한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후 측정 가능 장비의 종류와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❸ 측정 병원 선정은 회의를 통한 협의로 결정됩니다.
❹ 본 측정 사업의 목적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장비 사용과 영상의 화질 저하를 방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We are RT's
공지사항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안내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법률 민원 해결 및 법적 권익 증진 기여」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를 다한 회원
지역 의료분야·형사·민사·기타 법률 상담
상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자문 변호사
상담방법 비대면(ZOOM) 또는 대면(협회 회관) 상담
신청방법 QR 코드를 통해 상담 예약
* 상담 예약 확정 여부를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상담 예약 신청

기타
❶ 본 법률 상담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❷ 법률 상담은 회원당 1회/1년 신청 가능합니다.
❸ 법률 상담은 월 20건으로 제한하여 진행되며, '의료분야 상담이 1순위'로 배정됩니다.
❹ 상담 예약 일정 변경은 해당 양식을 재작성하여 발송 바랍니다.
❺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링크를 통해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취소 바랍니다.
❻ 자문 변호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협회 사무국 02-576-6524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슬로건 공모 수상작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24.11.16.(토) | The-K Hotel Seoul

최우수작 1편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

임시하 (대구보건대학교)

우수작 3편

"미래를 밝히는 빛 방사선! 미래를 꿈꾸는 방사선사"

이남주 (원광대학교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방사선, 미래를 이끄는 방사선사"

이승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All New KRTA. 도전과 혁신의 미래로"

안우정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2024년 11월 16일(토) 시상 예정이며, 최우수작 슬로건은 학술대회 홍보 및 대회식에 활용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초록모집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24.11.16.(토) | The-K Hotel Seoul

모집안내

대상

- 회원, 방사선학과 재학생

방법

- **국문 초록** 논문 전문 제외
  ※ International Session 발표 영문 초록
- 구연, 포스터 모두 초록 제출
  ※ 첨부 양식 참조
- **포스터 사이즈** 가로90cm×세로130cm
- **구연발표** 8분이내

제출 기간

- **초록** 2024.07.22.~09.13.까지
  ※ 기간 연장 없음
- **구연발표PPT** 2024.10.25.까지
- **포스터** 2024.10.25.까지

제출 및 문의 사항

- **제출** http://conference.krta.or.kr
- **사무국** 02-576-6524(내선 5)

구연, 포스터 시상

시상 내용 추후 안내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선사의 날’ 기념 포스터 공모전 결과 안내

‘7월 31일 방사선사의 날’을 기념하여 방사선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보건의료 전문직인 방사선사 직무를 홍보하고자
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구분	수상인원	수상자	소속	상금
대상	1명	최성민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30만원
최우수	1명	김우섭	한양대학교병원	20만원
우수	1명	손수연	아산베스트내과의원	10만원

대상

최우수

우수

선정되신 분들께는 ‘제2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 국회 정책 세미나’ 초청 및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방사선사의 날 기념식 2024.7.19.(금)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국민이 아플때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더 든든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KLPNA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안내

가 시험안내

1. 일정 및 장소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장소
1회	수도권(성남)	8월 25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2. 시험방식

◦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시험(CBT)

3. 시험시간

◦ 90분(문항수: 90문항)

4. 세부일정

회차	지역	시험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수험번호 공지	합격자 발표
1회	수도권	8월 25일(일)	7월 1일(월)~7월 26일(금)	8월 9일(금)	9월 6일(금)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We are RT's
공지사항

나 응시분야

분야	
①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⑨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근골격)
②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⑩ 투시 전문방사선사
③ 유방 전문방사선사	⑪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영상정보관리사
④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복부)	⑫ 치료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치료 방사선사
⑤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산부인과)	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⑥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유방)	⑭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⑦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심장)	⑮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안전관리사
⑧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혈관)	⑯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기기정도관리사
	⑰ 방사선 의학물리사

다 시험시간

시간	내용	비고
1교시(10:00~11:30)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응시분야 시간표 및 세부사항 공지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다중분야 응시불가)	1) 문항수: 90문항 90분 시험 2) 시험방식: 온라인(CBT)
2교시(12:30~14:00)		
3교시(15:00~16:30)		

※ 응시인원에 따라 교시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80,000원 / 납부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결제

3.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여부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날짜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내에 응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진행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 과년도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소속시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작업은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는 협회 사무국(02-6953-791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②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전문화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방사선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②번 항목 예시

-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임상초음파(복부) 전문방사선사 시험요건
  1. 연수원의 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과정 이수
  2. 사이버 교육의 연수원교육(초음파영상물리) 12시간 전체 이수 또는 연수원의 초음파영상물리 수료(1, 2 조건 모두 충족필요)

바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

사 자격증 교부

- 합격 후 홈페이지(개인정보조회수정)에서 60일 내에 자격증 교부 가능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실물 자격증은 제작 완료 후 90일 내에 원서접수 시 입력하신 수령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399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1등 골드바 반돈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10월 7일(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대한방사선사협회는 7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미래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 ]를 개최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Quiz 2 QPS(Quality and Patient Safety) 활동은 의료기관 내에 내재한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등과 관련 있는 [ ]과 [ ]에 대한 모든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분석 조치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Quiz 3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날짜는?

방사협보 제398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세요. 부산메리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원*정입니다. 우선 그 어렵다는 1등에 당첨되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방사협보를 보다가 이벤트에 여러 번 참여하기도 하고, 동료들에게도 홍보를 했었는데 이런 행운이 제게 올 줄은 몰랐네요. 타병원의 소식들과 업무에 도움되는 정보, 협회 소식 등 많은 정보를 담은 방사협보를 이제는 더욱 챙겨보도록 해야겠네요.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이벤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원*정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근무중인 주*하입니다
영상검사 시 방사선사의 정맥주사 행위에 대한 성열훈 교수님의 기고문을 보기 위해 접속한 웹진이 금 반 돈의 행운을 가져다주었네요. 의정갈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인터벤션 업무와 각종 검사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그간 타 직종과 마찰이 있어 온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생각됩니다.
회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_주*하 회원

제59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방사선사

2024년 11월 16일(토) | The-K호텔 서울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보건복지부